

‘1000 피스 퍼즐을 맞추는 과정’



지 용 준

-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재학 중
- 2019년도 5급 공채 교육행정직 합격

I. 밑그림, 들어가며

저는 ‘자이언트 팽TV’라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즐겨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재밌게 본 에피소드는 주인공 팽권이 1000 피스 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에피소드에서 팽권이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과정을 보며 저의 고시생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돌이켜보니, 저의 수험기간은 ‘합격’이라는 퍼즐 전체의 그림을 상상하며, 하루에 하나씩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합격을 위해 들인 기간도 일추 1000일(3년) 정도 되는 것 같아, 더욱 퍼즐에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다들 많은 합격수기를 보셨다시피, 합격수기는 수많은 공부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저 역시도 운이 따라서 합격하였을 뿐 제 공부법이 100%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공부 방법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합격 케이스가 있으니, 자신의 방향을 밀고 나가시는 데 쓰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자 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만 취사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듯, 제 합격 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II. 첫 번째 조각, 기간별 공부방법

1. 2016년 ~ 2017년 2월 (군복무기간)

저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고시’, ‘공무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4년 남짓입니다. 저는 군 복무 전까지만 해도, 일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군에서 상관으로 뵈는 행시 출신 장교분과 대화하며, 또한 저의 맞선임이었던 시은이형의 제안으로 PSAT 준비를 시작하였고, 그것이 제가 고시를 시작하게 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직에 대한 열망이 커졌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와 공무원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전역 후에도 계속 고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군복무의 특성상 9~6시라는 규정된 일과를 수행해야 하므로, 전업 수험생들처럼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차를 모두 공부할 욕심을 버리고, 1차라도 확실하게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2016~2017년까지 계속 1차를 준비했습니다. 아예 PSAT를 공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1차에 합격하려면, 기초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틈나는 대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고, 휴가 기간에 실전 모의고사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1차를 2017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 수험생분들은 대개 ‘군대’가 고시 준비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견이지만, 군 복무를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고시 준비하기에 전혀 매몰 비용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8~21개월은 국가에 바친 시간으로 합법적인 공백기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사고만 안 치면)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혹시 고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순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용이 잡혀있는데 군대가 걸림돌이라면, 그 안에서 2번 정도의 기회를 더 얻는 의미로 군 복무를 우선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곳에서 생각이 바뀌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돌리더라도, 복무하면서 뒤쳐지지 않도록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2017년 3월 ~ 12월

2017년 6월에 2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1차에만 모든 것을 쏟아서 사실 2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물론 복무하면서, 경제학-행정법-행정학의 기초는 했었지만, 답안 작성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 작성 틀을 연습하고자 복사집에서 3순환 모의고사를 구하여, 모의고사의 모범답안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답안을 베껴 쓰니 경제학에서 답을 내는 과정, 서술하는 과정이 눈에 들어왔고, 나머지 과목도 어떤 흐름으로 쓸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아무야 2차를 치고, 고시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여름방학부터(저는 1순환부터 수강해야 했기 때문에 2차 끝나고 쉬지 못했습니다) 고시반에서 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대비를 위해서, 이론적인 기초를 쌓고자 학교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여, 교육학의 기초 이론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을 조사방법론으로 결정하여, 겨울방학 때 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3. 2018년

사실 2018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선 저는 2017년에 1차 합격했고, 여태껏 1차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1차는 그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2017년 11월부터 1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1차 성적이 계속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기출문제 위주로만 계속 풀며, 속칭 '행복회로'가 계속 가동되어, "실전에서는 잘하겠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차에서 큰 점수 차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시험이 3월 초순이고, 발표가 3월 말이라 학교 휴학과 재학을 미리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합격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과 일치하여 미리 휴학했습니다. 그런데 1차가 떨어지니, 휴학했음에도 공부할 동력은 없고, 학교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내년까지 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이번에 2차 공부를 충분히 해야 했고, 3순환강의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수정하여 '국가직 7급 공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7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전공과목 중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이라서 3순환 강의의 듣되 7급 수험서를 참고한다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고, 헌법은 이전에도 7급 교재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만 보강한다면 충분히 승산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수정하여, 남들이 2차공부할 때 부러운 눈빛을 보내며 7급 전공과목 공부를 했습니다. 8월 시험 특성상 교육학과 선택과목 3순환을 하기는 어려웠고, 6월부터 헌법, 국어,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8월 시험에 운이 좋게도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국가직 7급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1순환 일부와 면접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급 공채에 최종합격을 하였으나, 마지막 고시 시험을 준비하고자 2순환과 1차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4. 2019년 1월 ~ 10월(최종합격)

2019년에는 2018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1차를 9월부터 학교 고시반에서 주관하는 합격생 멘토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니, 모강 점수도 높게 안정적으로 잘 나왔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다른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1차를 준비했습니다.

1차를 여유 있게 합격을 하니, 1차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학교에서 교육학 스터디에 참여하여, 작년에 하지 못한 교육학과 선택과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쓰고 싶었지만, 쓰기 어려웠던 교수 모의고사도 쓰면서, 답안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또한 제가 제일 약했던 부분이 행정법인데, 행정법 쟁점 암기 스터디를 통해, 답안에 보여주어야 할 소재인 쟁점을 상당 부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법령에 따라, 임용유예를 한 상태에서는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고시과목(교육학, 행정법, 행정학)을 무조건 수강하여, 고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학 이론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학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Ⅲ. 두 번째 조각, 제1차시험 과목별 학습방법

1. 총론 - PSAT이 약하다면? 걱정하기 보다는 조금 더 일찍!

저는 소위 ‘괴셋형 인간’처럼 피셋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2018년에 PSAT 불합격 경험을 복기해보니,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이 시간 투자를 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합격생 선배께서도 1차가 약하다면, 미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부터 PSAT을 몸을 풀 듯이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월부터 처음에는 기출문제 하루에 1영역씩, 나중에는 하루에 모의고사 1영역씩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시작하는 11월에 이미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모의고사를 더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기출문제만 푼다면, 실전 응용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를 3번 정도 (9월 / 12~1월 / 시험 전 주) 정도로 횟수를 줄여서, 실전 응용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는 기출문제를 보면 외우는 타입이어서, 응용력이 늘지 않아, 계속 무의미한 반복 작업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효율, 행복회로를 차단하고자 문제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문제를 푸는데 주력했습니다.

2. 헌법 - ‘조금 더’, ‘보다 넘치게’

헌법은 저는 조금 넘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차 시즌이 되면, 대부분 수험생이 ‘헌법을 어떻게 하면 60점대를 맞고 편하게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

니다. 저는 차라리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 보통 고시생들이 공부하는 수준보다 학습량을 조금 더 높인다면, 계속 점수를 안정적으로 맞고 도리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이 처음 도입된 2017년에 선동주 헌법 기본강의로 공부를 깊게 했고, 18년도에 헌법 공부를 할 때, 7급 헌법 기출문제집을 사서 반복적으로 풀며, 내용은 작년 헌법 기본서를 계속 회독하여 헌법 공부량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5급 공채 문제는 쉽게 풀렸고, 헌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한 번 해놓고 다니, 1차가 떨어지더라도 7급 공채를 준비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 해에는 헌법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도(실제로도 모의고사만 풀었습니다), 안정적으로 헌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 시험은 7급 공채와 달리 부속법령의 범위가 헌법, 헌법재판소법 정도로 제한적이고, 판례도 기본적인 판례를 위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공부는 반드시 숙지되어야 통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회법, 정당법 일부분도 학습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맞혀서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신판례는 7급 시험에서도 응시자 변별도를 확보하고자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학습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언어논리 - 논리 학습의 중요성

저는 대다수 수험생처럼 언어논리는 수능과 비슷해서 강의를 안 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기본강의를 통해 시험성적이 가장 안정적으로 점프한 과

목이 언어논리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논리’에 있습니다. 수능과 달리 언어논리 영역은 글의 흐름, 논리를 파악하는 시험이지, 세부내용을 구구절절 캐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과 논리를 명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1~18, 21~38번에서는 논리 문제가 출제되는데, 게임을 제외하더라도 논지 약화강화형은 글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논리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강사분 강의를 들으셔도 좋으니, 언어논리도 논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학원 기초강의를 수강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자료해석 - 계산 연습을 통한 체력기르기

대다수 수험생분처럼 저도 자료 해석을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거지’, ‘과연 다 계산하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료 해석은 결국 ‘계산 연습’과 ‘선구안’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 해석에서는 1~40문제 중 보고서형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속칭 ‘계산 체력(땃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다면, 풀 수 있는 선지가 많고, 만약에 헛갈리는 선지를 다 본다고 해도 합격에 필요한 문제를 모두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자료해석 공부하기 전에 매일 ‘자료해석 계산 프린트’를 1~2회 풀었습니다. 자료해석 공부는 점심시간 이후에 대개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나른한 상태에서 공부합니다. 계산 프린트를 풀면 뇌를 풀어주

는 효과도 있고, 긴장감이 있어서 졸음도 쫓고 계산도 연마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해석은 ‘선구안’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상황판단과 달리, 자료해석은 어떤 문제를 버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자료해석의 특징입니다. 막상 곁으로는 쉬워 보이는 데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데 계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문제를 풀 때, 처음에 풀 문제 > 2~3번째에 풀 문제 > 절대 안 풀 문제를 눈으로 스캔하면서 분류하되, 미리 ‘연립방정식, 어려운 공식 문제는 쉽더라고 반드시 풀지 않겠다’, ‘표+계산 문제(일반적인 계산문제)와 보고서, 평면 문제는 무조건 풀고, 다 맞추겠다. 풀 문제 개수는 32개이다’ 등 판단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모든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 기준에 따를 때, 연립방정식이 시험에 따라 매우 쉬운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연립방정식,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보이면 쉽게 풀지만, 안 보이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밀고 나갔습니다.

5. 상황판단 - ‘선구안’과 ‘점수 쌓기’

상황판단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못 풀 문제가 명확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맞히어 목표한 점수에 다다른 ‘점수 쌓기’를 통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했습니다. 대다수 학생분이 하듯, 저도 ‘일치부합·법조문, 수리계산형, 수리 퀴즈형은 반드시 푼다. 그리고 논리 퀴즈 문제 일부를 풀고, 그 외 퀴즈 문제는 모두 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30~32개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판단기준을 세우니 실제 시험에서

푸는 문제는 30문제 정도가 되어, '40문 90분'이 아닌 '30문 90분'이 되어 마킹포함 문제당 약 3분을 썼고, 그러다 보니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황판단에서도 '계산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치부합, 법조문 문제가 20문제 가까이 되어, 수리 퀴즈나 수리계산이 약해도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문제에서 보듯, 일치부합, 법조문, 수리계산을 모두 묶어도 60점 내외의 점수가 배정되었고, 만약 수리에서 실수한다면, 점수가 크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 연습을 더욱 충실히 해서 상황판단에서도 필요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지를 깨끗하게 풀어서 오류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IV. 세 번째 조각, 제2시험·제3차시험(면접시험) 대비방법

1. 제2차시험 학습방법

저는 제2차시험 학습 방법은 고시반에서 학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특별히 합격수기에 남길만한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처럼 연습책을 풀고, 트리니티에 요점을 정리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행정법은 사례연습을 전부 다 풀고, 핸드북을 외우면서 교수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 실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많은 합격수기에서 2차 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문과목 작성 방법과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과목을 쓰면서, 글씨가 악필이신 분들은 자기 글씨로 인해 '읽지 못해서 제 점수를 받지 못하는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우선 글씨를 '악필 교정의 정석'이라는 책을 통해 연습하면서 좋게 바꿔보되, 2) 글씨가 크게 바뀌지는 않으니 글을 깔끔하게 정돈하여 써서 교수님들 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과목 답안 작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논문과목을 쓸 때, 저는 문제에 소목차를 활용했습니다. 소목차와 소제목을 활용하여 문단의 핵심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 하단에 관련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소제목만큼은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하여, 교수님이 문단 내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어떤 내용을 썼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단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핵심어, 키워드)은 동그라미를 쳐서, 읽어보실 수 있게 했고, 또 그 키워드만큼은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령, 행정학 답안을 작성할 때, '적극행정 선례 제의 필요성'이라는 소제목 아래 '적극행정 올림'이라는 사례가 있다면, 그 '적극행정 올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서 읽어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악필인 분들은, 글씨를 고쳐보려고 노력하심과 동시에 답안 작성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사범대인 분들은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교육행정을 준비할 때, 과연 사범대생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학원 강의로 발달하지 않

아서,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육학 시험문제의 패턴 상 이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관한 공부도 중요합니다. 저는 고시반에서 현재 동기인 다애누나와 예일리와 함께 정책 스터디를 하여 30여 개 정책에 대해 서로 발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론 공부를 위해 저는 학교의 '교직과목'과 '교육학과 전공과목'을 활용했습니다. 사실 고시 교육학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깊이가 기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교직과목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교육학이 처음인데 교육행정 직류 시험을 보고 싶어 하다면, 먼저 교직과목을 들어 이론 베이스를 축적하고, 임용고시 강의, 교재를 통해서 깊이를 더해간다면 충분히 고시 시험에 나오는 교육학 이론은 대비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주 생각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대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학, 행정학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지속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차별화된 답안, 더 적실성 있는 답안을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행정학 시험을 볼 때 개선과제, 해결방안을 공무원의 시각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문에서 적극행정 촉진방안을 마련할 때, '공무원이 감사를 두려워서 행정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착안하여, 감사 분야에 집중하여 감사 면책제도인 사전컨설팅 감사와 감사원의 이해 상충 문제(감사원은 적발해야 실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를 촛촛하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 제공을 위해 적극행

정 올림과 같은 사례집 공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은 감사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각을 알면 더욱 적실성이 있으면서 독특한 답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저는 서울신문(공무원 관련 기사를 가장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 전·현직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쓰신 칼럼을 읽으며 메모해두었습니다.

2. 제3차시험(면접시험) 대비방법

(1) 경험정리의 중요성

5급 공채는 3차 준비 기간이 3주 내외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2차에 합격하시면, 등수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워서 면접에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면접 준비의 시작은 '경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합격 발표 나면, 카페를 통해서 면접 스터디를 구하신 다음, 기쁨을 잠시 누리시고, 바로 경험 정리에 나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험 정리는 '공무원 면접 교재(예컨대 이진우 면접특강)'에서 경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경험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입니다.

각 질문에 맞는 경험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만한, 보여주고 싶은 경험'을 몇 가지로 추리시고, 그 경험 안에서 '질문에 맞는 스토리'를 뽑아내시기를 추천합니다.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경험에 질문을 맞춰나가면 경험 마련에 대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2) PT 작성 - 대안방안 마련 방법

PT 작성에 있어서는 ‘대안 모색’이 중요합니다. 저는 좋은 대안이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대안, 공무원들이 생각할 만한 대안, 그러면서 약간의 창의성을 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저는 여러 부처의 보도자료를 읽어보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어, 마련하는 대안의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시각을 갖고 자료를 접하면, 자료를 어떻게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가 보입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기반하여, PT를 대비하면 대비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방안엔 자신의 참신성을 아주 약간만 더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V. 세 번째 조각, 기타 수험생활 전반

1. 운동, 건강관리

수험생활에서 취미나 기타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수험생활 기간에 운동은 필수로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남자 수험생분들은 대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자 수험생께서는 고시 공부 이전에도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운동을 굳이 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시 공부는 공무원 기타 직급 시험과 달리 장기간입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이 1년에 걸쳐 있기 있어 1년 동안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계속 앉아있다 보면, 건강이 크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가능한 고시 공부를

위해, 본인의 건강(삶)을 위해’ 운동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운동에 취미가 없던 사람인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을 때, 간 기능과 혈관 건강이 악화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고시 공부를 차라리 그만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의사 선생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2차 시험 2주 전까지 가벼운 유산소운동을 매일 저녁 먹고 계속 진행하여, 건강을 최소한 수준으로 유지해나갔습니다.

2. 스케줄(일정) 관리

저는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 중 하나가 ‘루틴’입니다. 스포츠 의학에서도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루틴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년간 같고 닳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도 ‘고시’라는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인 만큼 하루의 할 일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수험생활을 루틴화해서 생활하니, 다음에 할 일이 금방 예측이 되어 심리적인 안정을 얻었습니다.

우선 1차 기간에는, 아침 학교 고시반 등교 - 커피 - 모의고사 풀이 - 동영상 강의 시청 - 점심 - 계산 연습 프린트 - 자료해석 - 휴식 및 정리 - 커피 - 상황판단 - 저녁 - 상황판단 정리 및 보충문제 풀이 - 22시 30분경 종료 이런 식으로 하루 루틴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아몬드 음료와 바나나’를 꼭 먹어서, 이 식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몸에 익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기간에는, 아침 고시반 등교 - 커피 - 경제학 풀이(20문제) - 휴식 - 교육학 스터디 - 점심 - 행정법 암기 및 교육학 암기 - 교수님 출제 모의고사 작성 및 풀이 -

저녁 - 행정학, 선택과목 - 24시 종료 이렇게 루틴을 구성했습니다.

끝으로 저는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일요일에는 스포츠, 드라마를 보고 종교행사(미사)에 참석하며, 1주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VI. 마무리

합격수기를 작성하며, 저 역시도 지난 고시생 생활을 돌아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던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시를 준비할 때, “학교다닐 때 성실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똑똑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내가 고시를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성실함, 꾸준함으로 하루하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고시를 공부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아서 지면을 빌려 이렇게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사무관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늘 신자들께서 남기는 기도문의 내용처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봐 주신 부모님, 돈 없는 고시생에게 지원을 해준 누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집에 오실 때마다 잘할꺼라고 격려해주신 이모와 이모부, 직접 재배하신 농작물을 보내주시며 격려해주신 고모, “너 같은 애가 안 붙으면 누가 붙냐!”고 격려해준 사촌 형, 누나들에게도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공직 선배이자, 공직으로 이끌어주시고, 기초를 닦는 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선임 장교님, 군 복무할 때 응원해 준 시은이형, 제63회 합격동기인 진호 등등 공부하는 데 정신 팔린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군 복무 시절 만났던 모든 인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서로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합격 이후에도 고시 공부 이어서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7급 면접 스터디원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모두 현직에서 주무관으로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잘 싸워 주셔서 국민으로서 다시금 감사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시험이 미뤄지는 혼란을 뚫고, 더워지는 5월에도 구슬땀을 흘리는 1연구실 실원들, 스터디 동료들, 면접 준비하며 대부분 처음 만났지만 저보다 유능하신 학교 합격생 동료들, 2년 동안 공직자의 자질과 PT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고시반 지도교수이신 김상태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그룹면접을 하며 도움을 주셨고, 30년 긴 퍼즐을 함께 맞춰나갈 교육행정 직류 신입관리자과정 제65회(제62회, 제63회) 여러분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뜨거운 여름을 거치며 가을에 열매를 맺듯, 2차 공부를 마치고 가을에 합격의 결실을 보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